

Daily Auto Check

2023. 3. 29 (Wed)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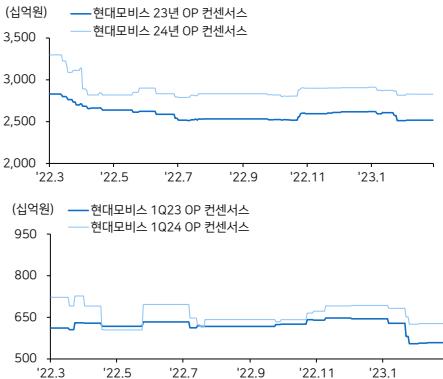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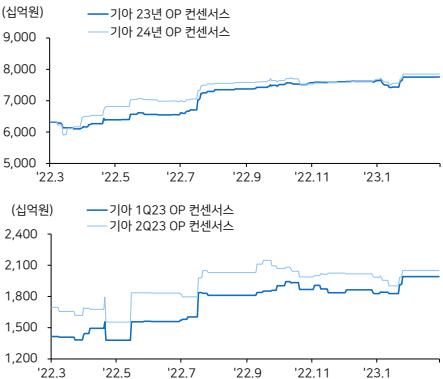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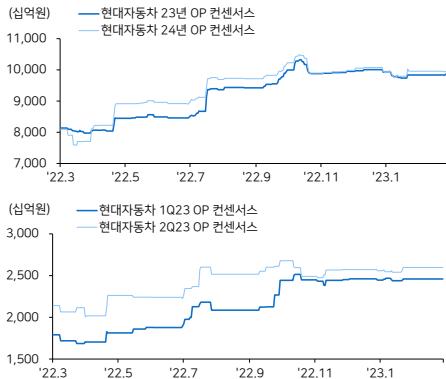
RA 장재혁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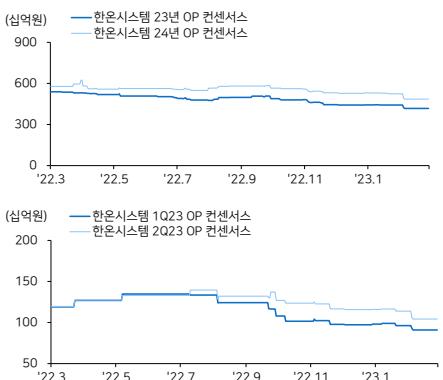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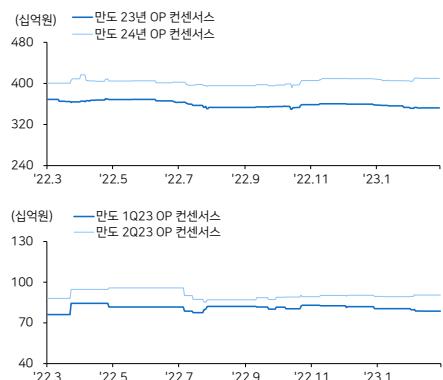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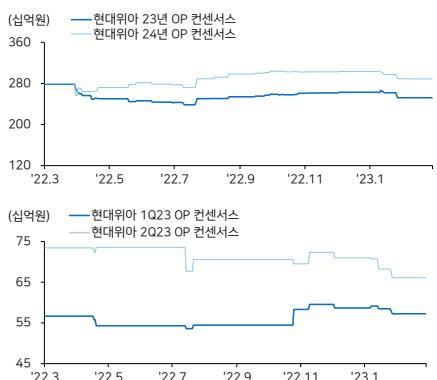
jaehyeok.jang@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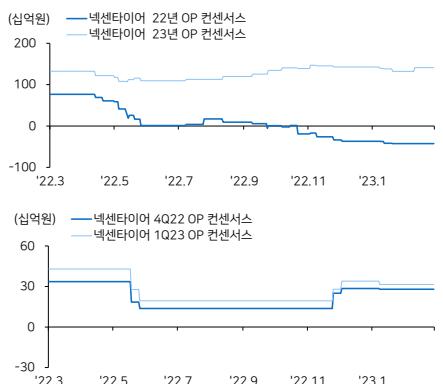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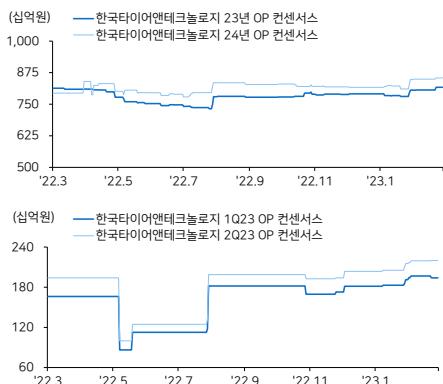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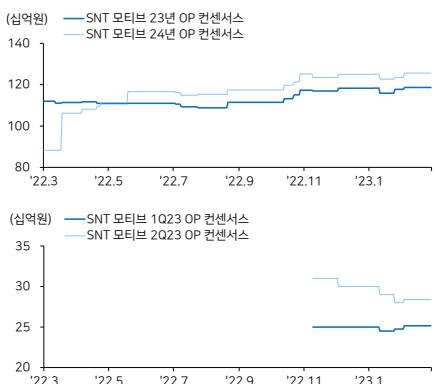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큰 거 온다”…기아가 핵심하고 만든 ‘EV9’ 세계 최초 공개 (한국경제)

기아가 두 번째 BEV EV9 제작을 공개. 국내 기준 1회 충전시 500km 인증을 목표, 99.8kWh 배터리를 탑재. 또한,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EV9에 2개의 라이다를 포함한 총 15개의 센서와 정밀지도, 통합 제어기 등을 장착.

<https://bit.ly/3zfGCWY>

美 전기차 업체 루시드, 실적 부진에 직원 13% 해고 (연합뉴스)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가 어두운 실적 전망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계획. 전체 직원의 13%에 대한 감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할 것. 리비안도 지난달 비용 감축을 위해 직원 6% 감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https://bit.ly/3Kfzsbv>

Value of battery metals in newly-sold EVs tripled on rampant lithium, nickel prices (Mining.com)

글로벌 배터리 금속 가치를 추적하는 EV 금속 지수가 2022년 총 269억 달러로 yoy 232% 증가. 이는 2022년에 2017~2021년 총 5년간의 총액을 합친 것보다 많은 금속 거래가 발생함을 의미. 러-우 전쟁과 펜데믹 불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성과.

<https://bit.ly/3TOFR0v>

BYD posts 11-fold jump in Q4 profit -filing (Reuters)

BYD의 4Q22 순이익은 73억 위안(10.6억 달러)으로 4Q21 6.2억 위안에 비해 약 11배 증가. 2022년 순이익은 yoy +446% 증가한 166억 위안을 기록. 자동차 부문의 GPM은 2021년 3.7%에서 2022년 20.4%로 증가.

<https://reut.rs/3KgQqWS>

“일본산 핵심광물 사용 전기차 배터리도 IRA 보조금” 美日 협정 체결 (조선비즈)

미국과 일본이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에 IRA 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협정을 28일 체결. 이번 협정으로 일본에서 채굴하거나 가져온 핵심 광물을 사용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가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됨.

<https://bit.ly/3G1rFO>

1위 ‘현대차가 판매 중단한 러시아, “中자동차 업체가 접수” (머니투데이)

올해 중국 자동차 수출물량이 68만대를 기록하며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 현대차·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판매를 중단하자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

<https://bit.ly/3G1qPPK>

Tesla (TSLA) Is on pace for a record quarter (electrek)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발표 시기가 다가오면서 주요 시장 판매실적에 이목이 집중. 미국은 가격 인하로 전례 없는 수요가 발생했으며, 중국도 이번 분기 약 14만대 배송이 예상. 노르웨이도 1만대로 소규모 국가로서 인상적인 실적 전망.

<https://bit.ly/3FYVoVU>

EU countries approve 2035 phaseout of CO2-emitting cars (Reuters)

EU는 2035년 CO2를 배출하는 신차 판매를 중단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 독일 e-fuel을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제권을 획득. 2035년 이후 신차는 CO2 배출이 없어야 하며, 2030년부터는 ‘21년 대비 55% 감축해야 함.

<https://reut.rs/3FYoCzZ>